

“황룡강을 도심형 생태하천으로”

장성군 공개토론회, ‘엘로우시티’ 랜드마크 육성방안 제안

자연교육의 장·사계절 경관 조성 등 친환경 관광산업 연계

장성군이 ‘황룡강’을 도심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집적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군은 “지난 18일 장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공직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룡강에 생명을 불어 넣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보물인 황룡강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 발전 방안과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주제 발표에 나선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연구위원은 ‘황룡강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하천의 본 기능인 ‘치수’기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기능과 경관을 보전하면서 ‘생태하천’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엘로우시티 브랜드 마케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신흥경 (사)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명예회장은 “장성이 펼치고 있는 컬러 마케팅을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 ‘엘로우시티’의 의미와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으며, “장성의 깊은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황룡강을 ‘엘로우시티’ 장성의 랜드마크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대학교 김병안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황룡강 르네상스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거버넌스의 기본개념 정립과 함께 실질적 민관 협력을 위해 ‘역동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호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 연구위원은 “황룡강을 자연교육의 장으로 키워 생태관광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성이 컬러 마케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색채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 주민의 공감에 망라된 총체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민과 함께한 공개토론회에서

는 “황룡강에 여름철 온 가족들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과 사계절 꽃 감상이 가능한 경관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개발돼야 한다”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년 전부터 시작된 엘로우시티 컬러 마케팅과 그 발원지인 황룡강을 주제로 심도 있고 알찬 토론이 진행돼 군민들에게도 장성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본다”며 “황룡강의 도심형 생태하천·랜드마크 육성 등의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장성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고창군, 독거노인에 떡국 떡 전달

고창군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회장 정명순), 고창종합병원,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등 관계기관들은 최근 고창여성회관에서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기부된 쌀 900kg으로 떡국용 떡으로 만들어 독거노인 1118명에게 전달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매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kwangju.co.kr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6월 가동 중단”… 전북권역 반발

현대중공업이 일감 부족과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예정대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강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최갑선 회장은 지난 20일 군산시청에서 “조선업 일감 수주의 어려움과 회사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오는 6월 이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폐쇄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

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 물량이 15% 정도로 줄어 일을 못 할 처지로, 회사가 위기 돌파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산업 현황과 회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막을 특별한 대안은 없으며 발주 물량, 시황 회복, 회사 경쟁력에 따라 가동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울산의 도크 8개 중 3개가 비게 된다”며 “군산조선소도 현재 3800여명을 유지하기 어렵고, 6월 이후에는 시설

관리유지를 위해 최소 인력만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1조4600억원을 투자한 군산조선소 가동은 우리의 책임이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자산”이라며 “회사와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의 ‘가동 중단을 막아 달라’, ‘일감 물량을 조금이라도 달라’, ‘실직자를 줄여달라’는 요청과 항의에도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양측은 한 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운영본부장 내달 3일까지 공모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입 사장과 운영본부장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항과 광양항을 글로벌 종합 항만으로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항만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응모 지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누리집(www.ygp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도착해야 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면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결론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군산시는 예정대로 다음 주부터 군산조선소 중단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송 지사, 문 시장,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등이 오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반대하는 도민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전북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인사 등 500여명이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 자택 앞에서 ‘범도민 쟁기투쟁 출정식’을 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여수수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한다

행자부, 적극 지원키로

지난 15일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전남 여수수산물시장 인근에 대형 주차장이 건립될 전망이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지난 20일 여수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인 지원과 인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불이 난 여수수산물시장과 인근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교통시장에는 매일 수천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찾고 있는데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수수산물시장에 127개, 교통시장에 477개,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200개의 점포가 각각 있지만, 공영주차장은 4곳

285대 규모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3층 규모에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김상만 여수수산물시장 상인회 회장, 배유근 교통시장 상인회 회장 등은 김 차관에게 이번 화재로 말미암은 수산물시장과 주변 전통시장의 경기 위축 극복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건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김 차관의 주차장 건립 지원 약속은 화재 피해 복구에 열중한 상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해남군, 고품질 겨울 부추 본격 출하

26개 농가 900여톤 생산

해남지역 농민들이 겨울철 농가 효자작품인 해남 겨울 부추를 본격 수확하고 있다.

시절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해남 겨울 부추는 잎이 넓어 쉽게 물러지지 않고 향도 좋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부추는 연중 수확이 가능하나 해남 농가들은 고품질 유지를 위해 11월부터 이

듬해 5월까지만 출하한다.

품질이 좋아 여름 부추에 비해 가격도 2~3배 이상 비싼 kg당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해남에서는 북일면 등 26농가 19.2ha에서 900t이 생산될 전망이다.

부추는 한번 파종하면 3~4년간 자라며, 겨울철에는 40일이면 재수확이 가능해 연간 4~5차례 출하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순창군, 22억 투입 흑염소 메카 육성

순창군이 내년까지 22억원을 들여 흑염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순창군은 흑염소 축사를 현대화하고 우량 품종의 번식용 토종 흑염소 구매비를 지원해 생산기반을 늘릴 계획이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균제 등을 보급하고 흑염소를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 순창군은 이를 통해 현재 1만7000여마리인 사육 두수를 2만마리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흑염소를 이용한 떡갈비와 탕 등 각종 요리도 개발해 지역 음식점에 보급한다. 예부터 기운을 북돋워 주는 건강 식품으로 주목받아온 대 착안한 것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흑염소 소비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청정 자연을 활용한 사육과 요리 개발로 순창을 흑소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서은종기자 syj@kwangju.co.kr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 택 / 투 자

-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중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미트 현대아파트옆 매 22억

농 지 / 투 자

-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 3.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 4. 나주시 디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합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 5. 나주시 디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 7. 나주시 세지면 오희리 면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 준 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군 북이면 입암산 밑 한옥마을 등 적합 6만㎡ 교통중용 9억
-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806㎡ 남향 위치중용 8000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반도 전망중용 1억4500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중용 남향면적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청송군 인왕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투자·매도·교환

- 순창군 구림면 강가에 경치중용 임야 다용도 1195㎡ 8천만원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주상복합 가능 5억
- 담양군 금성면 월동리 1488㎡ 찻집·가든 적합 1억9천
- 담양군 천변리 생산녹지 2968㎡ 차량통행 원활한 7억2천
- 담양 풍산면 대추리 2939㎡ 비닐하우스 4동있을 1억4천
- 나주시 노안면 5388㎡ 농장·전원생활 중용 교통중용 5억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풍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
- 담양군 금성면 국도점 7255㎡ 전원주택 아파트 등 적합 7억3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작용 1억천
- 관산구 고속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공정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남향·도로중용 7억
- 강진군 울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탕·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상가건물

- 월산동 온진각부근 대지 160㎡ 4층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화정동 광주은행옆 대지 235㎡ 2층건물 상가신축 적합 7억천
- 월산동 우진중근너 대지 258㎡ 건평 364㎡ 은행 9천 사무실, 사육, 가내공장, 광고제작소 등 적합 3층건물임 2억7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감정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담비림
- 윤림동 중삼사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유동 월동간을 대지 238㎡ 건평 152평 월동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 택

- 월산동 대지 197㎡ 건평 257㎡ 인접과 투룸 등 5 개조합 3억
- 월산동 보라아파트 부근 대지 96㎡ 주택 113㎡ 은행5천 매도 1억37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싸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매매 - 협의
- 소유자 직매 H. 010-4589-4566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